

сахалин州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2월 11일(금) --- (음력 1월 11일) --- Пятница 11 февраля 2022г. № 5 (1197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сахалин선수 소피아 나디르쉬나.

(사진: <노보스티> 통신사)

сахалин 주두마, 주일 미국대사 발언에 항의

안드레이 하포치킨 сахалин 주두마 의장과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브 주의회 사회정책 상임위원장이 램 이매뉴얼 신임 주일 미국대사의 발언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2월 7일 월요일, 미국 고위 외교관이 워싱턴에서는 도쿄의 "북방 영토"라고 불리는 쿠릴 열도 남부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킨다.

"일본이 북방 영토의 날을 기념하는 2월 7일에 미국은 북방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지지한다는걸 명백히 하고 싶다."고 램 이매뉴얼 대사가 말했다.

볼로트니코브 의원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알타협정과 포츠담협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сахалин 주두마는 항상 러시아 영토 보전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쿠릴은 러시아의 영토였으며 영토이고, 앞으로도 영토로 남을 것이다.

안드레이 하포치킨 의장은 "이런 부정확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대사에게서 듣게 되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сахалин 출신 선수 소피아 나디르쉬나,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지난 8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이 펼쳐졌다. сахалин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날 сахалин 선수소피아 나디르쉬나를 응원했다.

평행 대회전에서 сахалин 스노보드 선수 소피아 나디르쉬나가 라이벌 미셸 데커에게 16강에서 불과 0,03초 차이로 패배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이 우리 сахалин 출신 선수의 8강 진출을 좌절시켰다.

소피아는 경기 내내 선두에 있었다. 그러나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에 4개의 깃발을 놓치며 실수를 해 턴에서 속도가 떨어졌고, 상대 선수가 이 기회에 이득을 봤다. 아주 아쉬운 패배였다. 하지만 러시아 올림픽 팀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것만이 나디르쉬나 선수에게 영광이었고 그녀의 동향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기 충분했다.

이 сахалин 청년은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목표를 세우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소피아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의 동계 올림픽 참가는 위태로웠다. 소피아가 출국 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그녀는 러시아에 머물렀다. 음성 결과가 나

온 뒤에야 베이징으로 떠났다. 중국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될 수 있어 경기에 전혀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코치들은 그 기간 동안 선수의 경기력을 둘러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으로는 소피아는 운이 좋았다.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수도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베이징에서 한 번도 훈련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자격은 전투와도 같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빠른 적응력으로, 그녀는 충분히 잘 경기를 치렀다. 그는 자격 경기에서 4위를 차지했지만 안타깝게도 1/8강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сахалин에서는 소피아를 트레이너, 동료선수, 학교·대학 동창들은 비롯 스포츠애호가들이 모여 영상으로 그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сахалин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게 아쉽지만 18세의 스노보드 선수는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응원한 사람이 많다.

소피아 나디르쉬나는 현재 스노보드 평행회전 세계 챔피언이다. 게다가 평행 대회전에서는 소피아 선수가 전체 월드컵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본사 기자)

단신

알렉세이 문갈로브 сахалин 모기지국장이 사임

주정부 회에서 주택건설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알렉세이 문갈로브 국장이 사임을 결정했다고 주정부 정보정책국이 보도했다.

сахалин 모기지국은 2015년 지방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상업단체로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대출 제도를 조직하고 전문가 초빙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 단체이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시의회, 새 의장 선출

2월 8일 시 두마에서 개최된 37차 임시회의에서 신임 의장이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도 참석했다.

갈리나 포도이니코와 의원과 석 세르게이 의원이 의장 후보로 자체 지명했다. 시두마 <예지나야 러시아당 프락치아에서는 올레그 로가초브를 추천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석 세르지는 찬표 2개, 포도이니코와는 찬표 1, 나머지 찬표는 올레그 로가초브에게 주어졌다.

장기간 시의회를 이끌어간 세르게이 드미트리예브 의장은 2주 전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сахалин에서 며칠간 지진

2월 9일 23시 16분, сахалин섬 지역에서 지진이 등록됐다. 진원은 흙스크구역 프리우다촌 동남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지진 규모는 3.6, 진원 깊이는 5km였다. 이번 지진은 흙스크 구역 주민들이 체감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진도는 최대 2점으로 드러났다.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

같은 날 오전 9시 29분에는 토마리 구역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을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등록됐다. 해당 지진을 토마리,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구역 주민들이 체감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진도는 최대 3점이었다.

지난 2월 6일과 7일 сахалин 북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해 노글리키와 오하 구역 주민들이 체감했다.

сахалин주, 코비드19 상황

сахалин주보건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주에 비해 26% 상승했고 이번 주에는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2월 8일에는 하루 신 확진자 592명이 발생했다.

주보건부는 2월 9일 기준 COVID-19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날 76명이 입원했다. 3,489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568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687명이 사망, 잔여 병상은 175. 9일 신 확진자 499명이 발생, 3명은 사망.

282,617명이 백신접종을 받았다. 잔여 백신은 83,136도즈 분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오리엔티어링 사범으로 알게 된 인생의 기쁨, 전병희 선생 이야기

본지 작년 마지막 호의 이 모저모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세웨르(북쪽) 유·청 소년관광 센터의 학생들이 사범 전 왈레리의 지도에 따라 빙판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새해 축하인사를 전했다는 보도가 실린 바 있다. 오늘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바로 전 왈레리 씨다.

본명은 전병희, 러시아어 이름은 텐 왈레리 이와노비치다. 현재 그는 보충교육기관인 유·청소년관광 센터에서 6년째 오리엔티어링의 고급 사범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 전에는 개인사업가와 교사로 일해왔다.

1958년생인 전병희 씨는 1981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현 사할린국립대) 물리·수학과를 졸업해 주내 흡스크 구역 피오네리마을 8년제 학교에 파견되었다.

그 당시 이 학교 학생은 100여 명 정도였는데, 왈레리 이와노비치가 학교에 파견되기 전에 물리학과 수학 교사가 없어서 1년간 물리학과 수학 수업을 못하고 있었다. 젊은 교사의 충격은 매우 컸다. 학년별 수업과정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채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주교과목 교사가 모자라, 그는 정기적으로 체육, 도면 그리기, 노동교습(현 기술 수업)도 가르쳤고 가끔 화학 수업 등도 하

였다. 그 외 교과 외 수업 교사도 맡아 어린 학생들을 지도했다. 학교에 취직했을 당시 미혼이었던 그는 자유 시간이 거의 없이 모든 시간을 일과 학생들에게 바쳤다. 피오네리 학교에서 9년을 재직하다가 가정 사정으로 아니와구역 타라나이마을 중학교로 옮겼다. 이즈음에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둔 가장이 되었다.

이 학교에서도 교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왈레리 이와노비치는 물리학과 수학 외에 여러 과목을 가르쳤다. 천문학, 정보학 수업도 하고 체육 교사도 했다. 이 두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과 배낭여행도 여러 번 했다.

타라나이 학교에서는 8년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진 90년대라, 교사 월급은 계속 밀렸고 물가는 폭등하고 4인 식구(어린 자녀 1남1녀, 아내와 본인)가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자구책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팔기도 하였다.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뭘 바꿔야 하는 대책을 세워야 했다.

아내와 상의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북쪽에 있는 노워알렉산드롭스키에 있는 부모 집에서 살기로 했다. 그의 부모가 돌아가신 지 좀 되었고 그의 형이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너무 낡아 수리할 곳이 많이 필요했다.



이사한 후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했다. 봉고차를 구입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시내 버스 노선을 운행했다. 이렇게 식구를 먹여 살리며, 돈벌이를 하여 나중에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하기 같은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다. 광고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 장비로 돈을 벌 수 있었다. 너무 남아버린 부모님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 2009년에 그 집 옆에 새 집을 짓기 시작해 2012년에 입주했다. 집을 공사할 때 많은 부분을 가족이 손수 했다. 어린 학생이었던 아들과 딸도 부모를 도왔다. 아이들은 적하기를 타고 건재를 올리는 일도 해냈다.

«우리가 제때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이라도 늦었으면 이 집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돈이 정말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라고 전병희 선생이 말했다.

이들이 완성한 아늑한 집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좋다. 맛있는 요리와 수제 베이

오리엔티어링

(Orienteering)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험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겨루는 야외 스포츠이다. 참가자는 지형도를 가지고, 정해진 여러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원래는 군대에서 장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키백과

커리로 환영하는 아내는 한번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한때 이 집에서 엄마를 일찍 잃은 아내의 조카도 함께 지냈는데 전 선생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들처럼 대했다. 지금은 그의 자녀들도 친 손자손녀로 받아들였다.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알 수 있는 예이다.

10여년 전 버스를 운전할 때 우연히 대학에서 알게 된 여자분을 만났다. 그는 오리엔티어링 스포츠와 관련 일을 했다. 이 스포츠 경기에 선수들을 태워주는 차량이 필요하다면서 그는 바로 전병희 선생에게 버스운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선수들을 태우다가 오리엔티어링을 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지인은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그냥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직접 해보아라. 뛰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학생 때부터 육상

을 즐겼고 교사 시절에도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버스 운전, 건설장 작업 등을 하다 보니 몸이 좀 그랬어요. 뛰기 시작하니 몸도 풀어지고 많이 가벼워졌고 기분도 좋아지게 된 거죠»라고 전 선생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오리엔티어링이 썩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하다보니 경기에도 참여하고 우승도 종종 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통학 버스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나토르니와 클류치 촌에서 사는 아이들을 제31학교에 매일 데려다 주었다. 한번은 오리엔티어링 경기에서 우승해 거기에서 받은 우승기를 버스에 걸어두었더니 이를 본 초등학교생들이 오리엔티어링이 뭐냐며 관심을 보여주고 한번 경기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몇 명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같이 경기를 가게 되고 나중에 설명을 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스스로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차츰 수상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전병희 선생에게 유청소년관광 센터의 정식 사범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사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돈이라도 받아야 한다. 계속 무료로 할 것인가»라고 센터 지도부에서 말했다. 그러나 여태 취미로만 하고 있다가 2016년에야 정식으로 센터 사범으로 임용되었다. 첫 해에는 낮에는 사범(추가교육교사)으로 활약하고 저녁에는

제설작업 또는 땅에 구멍 파는 장비를 운송했다.

그러나 차츰 아이들의 스포츠교육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병희 선생은 «신체 및 지적 훈련의 결합, 자연의 신선한 공기, 수업과 경기를 항상 새로운 곳에서 하는 것은 오리엔티어링의 매력»이라고 하였다. 이 스포츠는 여름에는 도보로(달리기)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진행한다.

그는 제31호 학교 학생들 위주로 오리엔티어링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초등, 중등, 고등 학생 세 그룹을 지도한다. 고급 수준의 사범으로 인정받은 그는 사범과 제자들을 위해 학습자료 책자도 만들었다. 그는 현재 하는 일이 기쁨을 안겨준다고 토로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전병희 선생은 오리엔티어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스키 마라톤(파르후트지노브 마라톤, 트로이츠코예 마라톤)에 꼭 참가하고 여름, 가을에는 트라이애슬론(철인 3인경기 - 수영, 자전거 타기, 달리기)에도 두 번 정도 나간다. 그 외 육상경기 등에도 출전한다.

그는 동료들 뿐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친척들은 전병희 선생을 항상 응원한다.

현재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전병희 선생에게 박수 보내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 모저모

앙상블 '하얀 이슬',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사할린주 7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민속앙상블 '하얀 이슬'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선사한다. 콘서트는 2월 11일 18시 '로지나' 문화회관 문대에서 '너 없인 안돼'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 '하얀 이슬'의 단장은 러시아 연방 문화공훈자이며, 사할린주 명예교사인 엘레나 알레시코가 맡고 있다.

'하얀 이슬'은 사할린 전역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 팀은 러시아 연방 평의회에서 사할린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상을 두 번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의 9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삿포로에서 열리는 전 홋카이도 러시아어 대회에 세 차례 명예 손님으로 초청받기도 했다. 사할린예술대학 공연단의 일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3년 연속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앙상블 "Белые росы" даст концерт к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Белые росы" даст концерт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11 февраля в 18:00 на сцене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Я не могу без теб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ллектива "Белые росы" является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заслуженный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Алешко.

"Белые росы" являются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ажды коллектив был удостоен чести представлять культуру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на презент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ансамбль успешно выступал в девяти городах Хоккайдо (Япония), трижды являлся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Всехоккайдского конкур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ппоро. В составе творче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представлял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Восточ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2월 26일 "사할린 얼음" 축제 개최

낚시 애호가들에게 전통이 된 이번 행사는 11번째로 돌린스크구역의 나이바 강변에서 열린다. "사할린 얼음" 축제는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륙 지역의 방문객들 남녀노소,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팀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낚시에 참여한다. 또한 참가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를 고려해 별도의 종목이 준비된다.

낚시 경기의 규칙은 간단하다. 팀들이 빙판 위에서 돌아가며 진행하고, 각 팀은 4명으로 구성된다. 가능한 한 많은 나와가를 낚아야 한다. 심사단은 해당 어종 어획량만 계산하고, 어획 기준에 따라 물고기 길이는 최소 19cm가 되어야 한다.

낚은 물고기들을 저울질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50개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해 각자 '낚시꾼 바이애슬론'에 출전한다.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 진출을 위해 직접 구멍을 뚫어서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의 굵은 나와가를 낚게 된다.

참가자들은 2월 7일 월요일부터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최고의 나와가 낚시꾼에게 주어지는 상품 중 주요 상품으로는 ATV(쿼드로사이클)가 준비되었다. 또한 행사 참가자 및 내빈 전원에게는 상품 추첨이 기다릴 것이며, 추첨 측은 최고 연장자와 최연소 낚시꾼에 대한 추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낚시 사진을 뽑는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 "사할린 얼음"은 처음으로 지역 관광부의 지원으로 열린다. 참가자 전원에게 따뜻한 식사, 난방텐트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밖에도 나이바에는 요리전문가 Chefs Team Russia 커뮤니티의 쇼프로그래 등 야외 상점과 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하고 있다. 썰매장도 준비되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26 февраля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Гряду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тало традиционным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уже в 11-й раз на реке Найбе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ривлекает не только островитян, но и гостей из материков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в любительском и спортивном рыболовстве участвуют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семьи и рабочие коллективы. Кроме того,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рады гостям с ОВЗ: для них есть отдельная номинация с учетом физ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авила состязаний рыбаков простые: на лед поочередно выходят команды, в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Вместе они должны выуд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наваги: судейская бригада засчитывает только этот вид улова, причем рыбыны должны быть длиной не менее 19 см, по нормам промысла. После взвешивания добычи 50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ыходят во второй круг и соревнуются уже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каждый сам за себя. Участники бурят собственные лунки и вытягивают навагу промыслового размера, чтобы перейти на следующий этап состязания.

С 7 февраля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понедельник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Там же будет доступен регламент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рыбаков.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для лучшего добытчика наваги станет квадроцикл. Кроме того,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ждет лотерея.

(8면에 계속)

학생들을 위한 제6회 동양 언어 축제 비대면으로 개최

지난 4일(금) 음력설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주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의 지원으로 제6회 동양 언어 자치 축제가 원격 진행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등의 학교와 추가교육기관 학생 140여 명이 참가했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5-11학년 학생들은 축제에 여러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는데 일부 경연은 사전 과제가 있었고 참가자들은 결과물을 미리 제출해야 했다.

희망자들은 사진경연대회 <예술로서의 민족 의상>, <보컬>동영상 경연대회, <댄스 아트>비디오콘테스트에 경연하고 줌(Zoom)을 통해 <동양의 예술>온라인 퀴즈, 격언대회(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건축 예술>이란 한자에 관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다.

우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했다. 이들 중에는 사할린국립대 동양학과 교수들,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 직원 등이 있었다.

경연은 주로 개인전이었으나 <동양 예술> 온라인 퀴즈는 단체전으로 펼쳐졌다. 한국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가, 중국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동양김나지아가, 일본예술에 대한 퀴즈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2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동양언어 사축제에 앞서 동양김나지아에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외국어 주간이 펼쳐졌고, <올해의 상징 만들기>경연도 개최되었다. 주간 동안에 한국어, 일본어 경시대회를 비롯해 여러 경연이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는 두 개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는 2학년부서, 제2외국어로는 동양언어 중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하나를 선택하여 5학년부서 배울 수 있다.



{배순신 기자} (사진: 동양김나지아 제공)

사할린은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 "유치원 스키 타기"를 시작

사할린주에서는 아니와 자치구와 <엑손 벨체가스>회사의 지원으로 주 스포츠부가 주관하는 '유치원 스키 타기'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첫 번째 참가자는 노보트로이츠키 "초록 섬" 유치원이다. 유치원생들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무료 교육 받을 것이라고 체육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아니와 스포츠 학교의 스키 경기부 코치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를 가르칠 것이다.

올해 수업에는 60명에서 80명의 아이들이 참가할 것이다. "유치원 스키타기"는 "학교 스키타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수천 명의 사할린의 어린이들이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크로스컨트리 및 알파인 스키를 무료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사할린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동안 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사할린 1인당 평균 소득 58,643루블

사회보장부는 사할린 지역의 1인당 평균 소득을 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반부패 포털에 게재했다. 이 지표는 정부 지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전년도인 2021년에 책정된 기준인 58,643루블로 책정할것으로 제안되었다. 해당 금액은 결의안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장부는 결의안 이행을 위한 추가 과세(시민에게 예산 부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재원은 현행 지역 예산 내에서 고려되었다.

완도쌀 '자연그대로미' 2022년에도 러시아 수출 순항 새청무 최고품질 브랜드쌀 지속 수출 통해 완도쌀 위상제고

완도군은 2022년 2월 7일 완도군농협연합 미곡처리장(RPC)에서 완도군 브랜드쌀인 '자연그대로미'를 러시아로 6번째로 수출을 하였다. 이날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완도군수, 완도농협조합장 등 농업관계자가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완도군에서는 완도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 9회에 걸쳐 118톤 약 3억원이 넘는 쌀을 수출하였다. 이번에 수출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 18톤은 완도군농협연합RPC에서 출하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주 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러시아 수출은 2025년까지 약 700톤 규모로 수출양정이 되어 있다.

그간 완도군에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인 "새청무" 도입 및 확대, 최고품질쌀단지 340ha 육성 및 전면적 GAP(우수농산물)인증 획득, RPC의 현대화 시설과 DSC(건조·저장시설)에서 최고품질쌀 별도 저장하는 등 완도쌀의 품질 향상의 노력해 왔다.

특히, 완도쌀에 미역부산물물 비롯한 바닷물, 해초액비, 어분퇴비, 패화석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쌀을 육성하고 해양치유



사진=완도쌀"자연그대로미"2022년에도 러시아 수출 (자료제공 완도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연계한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쌀을 수출한다는 것은 완도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해외에서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국내외적으로 완도쌀이 품질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GAP인증 확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 등 최고품질 쌀 재배기술을 실천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쌀을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일보}

[신PD의 K 리포트]

메타버스는 누가 운전할까?

'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버스(bus)가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경험, 인식, 한계의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의 유니버스(universe)를 합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게임에서 시작됐는데 총 쏘고 탐험하는 게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졸업식, 입학식, 신입사원 면접, 가수 콘서트, 팬 싸인회, 자동차 드라이빙 체험, 노래 자랑, 캠프파이어,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정치인 정견 발표 등등... 한마디로 물리적 공간의 활동들 대부분이 메타버스 공간에 복제돼 존재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메타버스가 이렇게 급부상한 데에는 코로나 19가 한몫을 했습니다. 사람간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다 보니 여러가지 온라인 도구들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메타버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Zoom 같은 화상회의와 달리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특별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공간과 디지털 가상공간과의 구별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VR, AR의 기술발전이 심화되면 '혼동'은 더 깊어질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메타버스를 알아야 합니다.

저도 작년 2학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ifland를 써서 수업을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강의가 저는 쉽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그래 보였습니다.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양한 기능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메타버스에서 발표도 잘하더군요. 정말 '디지털 원주민'임을 실감했습니다. 90년대~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어서, 각종 도구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룹니다. 메타버스의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도구들 -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을 초등학교 이전 시절부터 이미 가지고 놀았던 경험의 결과일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등장해도 쉽게 적응하는데 중장년 세대는 힘들어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쓰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요상한 것까지 익혀야 한다면 한숨 먼저 나올겁니다.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것들을 알려드리면 한숨이 좀 알아지시리라 기대합니다. 우선 멀리 떨어진 가족, 친지와 만나는 것이 편해집니다. 카카오톡 화상전화나 아이폰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같은 기존 도구로 화상 통화하는 것과 경험이 다릅니다. '가상 현실'에서 '가상' 보다는 '현실'에 더 집중한 설계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실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사(模寫)해 옮겨놓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이 진행중이라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2018)' 정도의 완결성은 아직 아니지만 현실과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구찌, 나이키, 발렌시아가 같은 명품 브랜드를 사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템이라서 진짜 제품의 1000분의 1 내외의 가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착용하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높습니다. 어떤 10대는 메타버스 공간을 설계하거나 악세사리를 디자인해서 고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상해본다면,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메타버스 열어줘'라고 하면 벽면을 채운 디스플레이 화면에 사할린과 안산에 각각 살고 계신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한강 산책도 함께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십니다. 영화도 같이 보거나 영상으로 대화도 하고요. 정겨운 장면입니다.

메타버스를 홍보하는 글로 오해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특히 반가웠던 것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 또 가족과 가까이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입니다. 타고 다니는 버스는 기사 한명이 운전하지만, 메타버스는 우리 모두의 상상력으로 취향에 맞게 운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우리의 아쉬움과 외로움을 좀더 따뜻하게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стоялся VI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на базе МАОУ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VI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Целью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учающихся во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развитие их творчески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на основе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В 2022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и 5-11 классов.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имназии №1, №2, №3 и средние школы №22, №30, №3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школьники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Углегорска.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л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творче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Искусство архитектуры»;
- онлайн-викторины «Искусство стран Востока»;
- фото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как искусство»;
- видеоконкурс «Во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 видеоконкурс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 видеоконкурс «Танцев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 конкурс афоризмов (на япо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вал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жюр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сотруд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учите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циалисты ГАУК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и СахОУНБ, педагоги МБУДО Центр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МАУ ДО ДД(Ю)Т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реограф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GS».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конкурсов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Всем ребятам будут вруч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участия, сообщили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ошла Неделя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ошли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и японскому языку, а также конкурс «Символ год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амках Творческой встречи «Межэтнические основы календарного праздничного цикл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В. Путина 2022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Дом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мени В.Д. Поленова (ГРДНТ) 6 февраля 2022г. в 15-00 состоялась межнациональная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Межэтнические основы календарного праздничного цикла».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ы воссо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разднования Рождества и других зимних праздников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Пресс клуб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овели в этот день корейскую часть праздника. В его рамках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книг,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Кто та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а также инсценировки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 участию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глас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Н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ученых,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обеспечивалась теле и радиоканалами, С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газетой, сайтом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другими.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звано знакомить и приобщить россиян к истории, судьбе, традициям, обычаям и образу жизни, достижениям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и книги «Кто та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авторами книги, послуш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экспертов, журналис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остоялась и автограф-сессия.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судьбу,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делают многое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самобытности и уника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лорита, укоренившихся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своих предков. Это та духовная основа, которая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культурой, мировоззрением, религией, психологией —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и стержням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 презентуемой книге «Кто так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обобщенном виде изложены история появления, основные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обряды, образ жизни, характе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менталитета корейцев. В отдельном разделе книги даны интервью и заметки о известных современниках -корейцах, чьи интервью были в разное время размещены в газет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встреч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иглаш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учёные, эксперты, журналисты,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з Москвы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Центра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ГРДНТ, кандида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С.И. Кулибаба.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После этого краткого вступления авторы книги Моисей Ким очно, Валентин Чен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рассказали об идее и истории написания книги.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книге поделились: кандида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С.И. Кулибаб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эксперт, кандида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Сергей Кучинский (рецензия), поэт Платон Дюгай,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лодёж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авел Пай и другие. Они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издания и подобный популяризаторский тренд книги, её актуальность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ример гармоничного вхождения в российскую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Ценно в книге, что освещена особая ментальность, синтез языков и норм жизни,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бытия. Несмотря 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й состав сообще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и заня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Добившихся впечатляющих успехов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нига актуальна ещё тем, что читателю преподносится истинная история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корейцев и сохранения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в России, СССР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делан большой шаг в познании сущ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ежиме оф/онлайн.

В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включены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вы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Ханль Сэ» (Небесная птиц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Алёна Пак), инсценировки встреч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и дружеское чаепитие.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광고-광고

새고려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тбывающий обязательну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популярный актер не теряет времени зря

Сеул, 6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ак Бо Гу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сущий обязательну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ВМС Южной Кореи, сд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чтобы стать лицензированным парикмахером, сообщили во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Пак,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обязательну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с 2020 года, сдал экзамен в декабре, сообщили источни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н находится в военном штабе Кендэ, в 16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Пак собира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вою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апреле.

Все трудоспособ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ужчины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обязательную службу в течение примерно двух лет в стране, котора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постоянными угроз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ебютировав на экране с фильмом-триллером «Слепой» (2011), Пак приобрел огром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ыграл главную роль в хитовых сериалах «Ответ 1988» (2015) и «Любовь при лунном свете» (2016).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состоится 13-14 февраля

До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РК 9 марта, осталось меньше месяц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состоится 13-14 февраля, а 15 февраля начнется 22-дневная агитационная кампания. В этот период запланированы три раунда теледебатов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с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с 23 по 28 февраля, а моряки, находящиеся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 с 1 по 4 марта.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4-5 мар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и избирательными правилами, те, у кого COVID-19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досроч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е смогут. Избиратели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по почте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они подадут заявку не позднее 13 февраля. Те, кто окажется заражен после 13 февраля, с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а специальных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в стационарных центрах лечения в период досроч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в стационарных центрах лечения 9 марта открывать не планируется.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м с больными и находящимся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в день выборов запрещено лично посещать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они не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е избирательное право.

Карантин для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COVID-19 сокращен до семи дней

Начиная с 9 феврал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обязат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для всех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установлена в семь дней.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Ранее те, кто не был привит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лж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в изоляции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а сем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был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привитых пациентов. Началом карантина считается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теста. Ранее срок самоизоляции для больных с симптомам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счислялся с момента появления заболевания, а для бессимптомных больных - с момента е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зменения приняты из-за активиз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оминирующего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Еще одно изменение касается граждан,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заболевшим. Начиная с 9 февраля, только не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роживающие совместно с заболевшим и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е с больным, будут обязаны пройти сем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Лечение на дому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группах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Домашнее лечение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отныне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пациентах старше 60 лет и пациентах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тарше 50 лет.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состоявшемся 7 феврал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пересмотреть систему карантина и лечения, чтобы адаптировать ее к варианту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обрати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смертей и серьез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в группах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ересмотренной системой, пациенты с COVID-19 в возрасте 60 лет и старше, а также пациенты старше 50 лет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таблетки для леч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ут лечиться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под медицинским наблюдением. Пациенты с COVID-19, не подпадающие под категорию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буд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 состоянием и обращаться в больницы, если их состояние ухудшится. Члены семей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могут выходить за продуктами, лекарствами или другими предметами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 соблюдая полн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Выступая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бустерные прививки, противовирусные таблетки и более низкая степень тяжести варианта Омикрон,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штаммами, помогают уменьшить смертность и число тяжелых случаев. Омикрон может стать последним препятствием перед возвращением страны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Ежемесячные пособия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на детей до 8 лет

С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ежемесячные пособия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на детей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и восьм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то есть, на год дольше, чем сейчас.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9 февра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одителям и опекунам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авать отдельную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однако до 31 марта необходимо сообщить об изменении номера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и других личных данных. Для этого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в юрисдикцию которого входит адрес регистрации ребенка. Система детских пособий была введена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озраст ребенка, которому положена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был увеличен с шести до восьми полных лет. Размер пособия составляет 100 тыс. вон (84 доллара) в месяц. (RKI)

СМИ: Южная Корея хочет открыть офис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НДР в приграничном городе Китая

Одна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контролируе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хочет открыть в Кита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бы курировало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фис должен располагаться в одном из городов КНР в районе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Эксперты, однако, поставили под сомнение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создания подоб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О плане по открытию офис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Китае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сылаясь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в минюсте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Согласно полученной журналистами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собирается открыть Ассоциация по поддержк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минюсте объедин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появи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в городе Дандун,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границе КНР и КНДР, прямо напроти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Синьчжу. Дандун и Синьчжу разделяет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 через которую проходит "Мост дружбы". По этому мосту в "доковидные времена" проходило обычно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Поэтому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 его "мостом жизни" для Страны чучхе. В Дандуне же базиров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мпаний и госструктур,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сь торговлей с Китаем. Кроме того, сам город достаточно значительный, имеет самую развитую на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а потому, если где-то и открывать офис с прицелом на работу с КНДР, 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андун, пожалуй, самая лучшая кандидатура.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бот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дач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правовая защ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работающих там, а также оказание всевозмож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ам по развитию связей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 цитиру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азеты слова чиновника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едомство решило потратить из бюджета Фонд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338 млн вон (около 28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а созд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ссоциации по поддержк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едомстве не стали подтверждать или опровергать сообщения о возможном открытии офиса в Дандуне, но похоже, что все идет к тому, а день-



Мост в Дандуне между Китаем и КНДР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ги отложены как раз на эти цели. У Ассоциации пока есть только своя штаб-квартира в Сеуле, а зарубеж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нет. Учитывая задачи организации, а также не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 соз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КНДР,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фис появится именно в Дандуне.

Вместе с тем, многие независимые эксперты усомнились в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соз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как минимум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еще в июне 2020 года КНДР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взорвала офис связ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в межкорейском технопарке в райо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эсона. Данный офис как раз и выполнял рол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где Юг и Север могли общ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нятно, что офис в Дандуне КНДР вряд ли решится взорвать, но вполне может игнорировать,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соблюдать строг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Открытым также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ак власти Китая отнесутся к идее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вать с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 границе с КНДР, учитывая, что порой отнош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далеки от идеальных, а потому при определенных раскладах офис может начать вызывать раздражение северян.

Тем не менее хватает и тех, кто оптимистично настроен. Сторонники откры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с 16 января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а потому не за горами тот день, ког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менит строг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Кроме того, разного рода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мены и прочие идеи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КНДР требуют про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разного рода поддержки, а тут офис может сыграть важную роль аналога посоль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огда выбирают президента пушки молчат

Сеул, 6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откладывают регулярны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этого года с марта на апрель в связи с предстоящи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и непрекращающейся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оенный источник сказал: «У нас была дискуссия о переносе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в связи с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США в Южной Корее».

Два союзника обычно проводят масс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два раза в год, в марте и авгус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резко сократили их масштабы, проведя компьютерное моделировани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Но COVID-19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сред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хотя все они полностью вакцинированы. 1 599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д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в период с 4 по 10 января.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инфициров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4 626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6,5 процента от всех 28 000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дислоцированных в Южной Корее.

«Сред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здесь произошло больше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COVID, чем среди всех 550 0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где число случаев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3 500», — сказ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чиновник.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а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олдаты командования объединенных сил так боятся COVID, что отменяют встреч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внедряют новые методы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уч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раны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хирург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Кирилл Стегний провел сегодня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бариатрической хирурги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специалист проведет ряд разноплановых опер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научит островных коллег нюансам проведения малоинваз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на брюшной полости. Развит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оходи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вум сахалинским пациентам предстоит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е операции по удалению колостомы. Ранее больные уже перенесли обширные оператив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на кишечнике, вызванные онкологическим заболеванием. Повторная операция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спаек или грыж. Чтобы этого не допустить, новая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м способом.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будут ассистировать главно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хирургу, в дальнейшем подоб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он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 Сегодня вся хирургия стремится к малоинвазивным доступам.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етс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лучш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ежегодно расширяется спектр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Применение таких методов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напрасных аппендэктомий, когда имеется спорный диагноз. С помощью нескольких проколов можно подтвердить или опровергнуть диагноз и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тактику лечени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хирур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еб Бандуристов.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 бариатрическая хирургия. Это один из возможных, а иногда и последних, способов помощи человеку, у которого ожирение достигло патологических объемов и угрожает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Именно риск тяжелых осложнений и преждевременной смерти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ние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й операции.

— Эта операция не для красоты, а для спасения жизни человека. Это пат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когда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правиться с ожирением ни диетой, ни физическими нагрузками. Длительное морбидное ожирение приводит к осложнениям, поскольку скелет рассчитан на определенную нагрузку, с возрастом наступают необратимые последствия, вследствие лишнего веса возникает эндокринны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болезн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В процессе вертикальной гастропластики будет уменьшен объем желудка, уберем зону, которая отвечает за насыщение пищей, эффект поразительный,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хирург ДФО Кирилл Стегний.

Для пациентов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ая операция — это всегда меньший риск осложнений, отсутствие шрамов, быстрый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и скорое возвращение к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витие малоинвазивной хирургии приводит к увеличению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 регионе. В 2019 году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было выполнено 360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х операций, а в 2021 году таких вмешательств было уже 511.

Отметим,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стемно развивают направлен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едпомощи в регионе — закупа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организуют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глашают для обучения местных кадров лучших врачей стран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эры и застройщики несут персона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качество новостроек

Вопрос был поднят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водом послужили поступающие в соцсет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жалобы со стороны новоселов. Отметим, в регио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действует проект «Народный контроль».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а стадии отделки своих будущих квартир могут выразить замечания. Застройщик до за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должен устранить все недостатки.

— От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оступают жалобы на брак и недоделки в только что построенных квартирах. Для их оперативного устранения приходится вмешиваться лично и решать ситуацию буквально в ручном режиме. Так быть не должно, система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сама — без сбоя 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а. Требую повысить контроль над застройщикам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чтобы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претензий со стороны новоселов. Люди должны переезжать в качественное жиль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заслушал подробный доклад мэра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б исправлении недочетов в новостройках села Ильинског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личн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льцами, которые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перебои в системе отопления, плесень в квартирах и отсутствие ограждения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и озеленения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Дома по улице Сибирской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м были сданы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новостройки на гарантии, все недостатки обязан устранить застройщик.

Как сообщила мэра района Ольга Манжара, по одному из адресов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еправильно была отрегулирована система отопления. Этот вопрос уже решен.

— Я лично посетила квартиры. У большинства жителей

жалоб изначально не было. Обращение, которое поступило в соцсети, это жалоба жительницы одной из квартир по улице Сибирской, 17. Там проживает одинокая женщина, она в больнице сейчас, как выпишется, проверим отопление в квартире иотрегулируем если потребует. По поводу плесени, считаем, что причиной стали некачествен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ефлекторы. Подрядчиком приобретены другие. С 10 февраля их начн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 Кроме того, на кухнях в квартирах смонтированы приточные клапаны. Это позволило наладить режим влажности в помещениях,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по словам мэра, выполнено поручение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граждения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Посоветовавшись с жителя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ровести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В апреле-мае будут высажены кустарники, деревья и посажены газон. Кроме того, подрядчик проводит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треснувших плит фасада.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е рас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и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Благодаря ее реализации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почти 3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егиону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средств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ло получить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еньги, необходимо убедиться, что они будут освоены максимально качественно и решат проблемы людей.

30 семей из Тымовского отметили новоселье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в современной пятиэтажке,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центр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получили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еньги на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рамк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нят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От лица главы региона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новоселам всего самого доброго. Пусть в ваших квартирах царит любовь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Работ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или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домов в Тымовском — важная ее составляющая, — обратилась к жильцам нового дом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Стаценко.

Квартиры сданы «под ключ»: в помещениях выполнен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установлены окна, двери, сантехника и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Новоселам остается лишь перевести мебель.

— Очень рад переселению. Переезжаю с отцом. Ждали квартиру с 2017 года. Она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 уютная, светлая и теплая. Главное, ниче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 ней делать не нужно.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и экономично, — отметил новосёл Олег Клецки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 начала 2021 года ключи от нов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около 80 семей из Тымовского.

Отмет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ктивное рас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из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и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региона. В 2021 году благодар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грамме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ил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Э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ма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ереселят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 продолжении программы ранее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ства на расселение жителей выделялись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федеральные деньг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получила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выполнил прошл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обеспечив современным и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м жильем всех,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заплатит крупный штраф за несвоевременную очистку кров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вернута проверка своевременной расчистк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кровель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от снежных наносов и наледи.

Мониторинг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илами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 Такие проверки мы проводим регулярно. Однако из-за сильных снегопад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усилить эту работу. Осмотр объектов проходит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Специалист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ние внутривидовых проездов, входных групп и крыш, — отметил 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жилищной 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Истомин.

В ходе проверок выдано 111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й о наличии нарушений по содержанию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кровель в январе. Вынесено 18 предписаний об

устранении нарушений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рок.

В частности, в связи с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й расчисткой кровли от снега и льда 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ивлечена ООО «ЖЭУ-2», а также директор управля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Юридическое и 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 выплатят штрафы — 125 000 и 25 000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нили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на электрокары

Накануне законопроект, внесенный губернатором в областную Думу, был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н депутатами во втором чтении. Теперь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который ранее был снижен в 2 раза, полностью обнулен.

—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ива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транспорт. Электрокары наносят наименьший вред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экономичны и неприхотливы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оэтому таких машин на наших дорогах должно бы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Для этого мы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м заряд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устанавливаем современные станции в наших городах. Также в проработке находится вопрос системной утилизации литий-ионных аккумуляторов, решение которого требу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тношении электрокаров и гибридных авто действовала льгота по транспортному налогу в размере 50%. Мэру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гибридных авто сохранили на том же уровне и продлили до 2025 года.

Налоговая льгота —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ующ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товладельцам также организ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возле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А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ических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тариф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снижен на 30%,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нижает стоимость зарядки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аздник рыбацкого азарта состо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26 февраля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2022» пройдет уже 11-ый раз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г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ются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но и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зволяют вовлечь в любительское и спортивное рыболов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соревнуются женские и детские команды. Также есть смешанные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 папа, мама, дети.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участи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долгожданный праздник,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не тольк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и их единение, сплоченность и 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ь. Чего стоит только внешний вид участников! Команды заранее продумывают свои костюмы, соревнуются в креативе,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По правилам состязаний первыми на старт выходят участники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 — по 4 человека в каждой. Их общая задача — пойм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наваги. В зачет идет только этот вид рыбы и длиной не менее 19 сантиметров — это промысловый размер. На этап выделяется полчаса, в случае плохого клева время может быть добавлено, чтобы шанс пройти на следующий круг состязаний был у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После взвешивания улова 50 команд с лучшим результатом проходят во второй этап.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каждый выступает за себя. Участники бьют в каждом из 4 этапов лунку,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можно переходить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тянул рыбу промыслового размера.

В рамк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с пользой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но и завоевать хорошие награды. Главный приз этого года — квадроцикл.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ждет лотерея. По традиции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призов самый опытный и самый юный участники. Состоится конкурс на «самое сахалинское рыбацкое веселое фото».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тур. Туроператор обеспечит рыбакам-любителям трансфер, питание, предоставит удочки.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есплатно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места для обогрева, выездная торговля,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шеф-поваров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Гостям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как по-новому приготовить привычную уже для многих навагу. Для детей обустроят отдельную зону, где они смогут покатаются на санях.

Рыбалка — одно из любимых хобб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а рыба — важная часть рациона питания.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ют дары моря по ценам ниже рыночных. Каждую неделю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уют продажи свежельвовленной рыбы напрямую от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е региона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о сохранении цен на навагу на уров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日강제동원위 11년사] ① '35자' 이름도 긴 '역사전쟁 야전부대'

2004~2015년 한국정부 차원 진상규명 전담기구 역할 수행 日 산업유산 등재 등 사안서 활약 '한시 조직' 한계로 폐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제2, 제3의 사도광산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다룰 정부 전담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11년간 정부 차원의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작업을 최전선에서 수행했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지 않았고 한시적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적잖은 성과를 낸 위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당시 재직자들이 전하는 한일 역사대응의 치열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편집자 주)**



사도광산 갱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일본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지역 산업시설과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하자 한국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여기에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端島)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노역한 현상이 포함됐다. 일본은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혁명 유산'임을 내세우며 등재 시기를 전쟁 이전인 1850~1910년으로 좁히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논란을 비켜가려 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몇몇 전문가들이 모인 대응조직이 꾸려졌다. 등재 신청지의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외교대응 전략을 짰다. 등재까지는 막을 수 없더라도 '강제동원이 있었던 곳'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팩트'를 가공해 일본 측과 협상에서 활용하고,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도 공유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결국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부 시설에서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게 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곳 중 하나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였다. '35자'의 긴 이름이 붙은 이 위원회가 제공한 진상조사 결과 등 사실관계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무게가 실려 관련국들에 전달됐다.

이런 역할을 한 위원회는 그해 말 활동기간 만료로 문을 닫았다. 이후 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은 사도광산이라는 또다른 강제동원 현장을 '산업유산'으로만 포장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다. 강제동원이라는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를 최전선에서 다룬 정부 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유산이 향후 유사한 문제 대응에 제대로 활용될지는 숙제로 남는다.

◇ **시민사회 요구로 출발... 日 전쟁 피해국 중 정부차원 진상규명 최초**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열렸다. 한국 등 일본군의 전쟁범죄 피해 당사국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군 위안부 동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책임을 검증하는 민간 행사였다. 법정은 일본 전황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일제 강제동원을 한일 양국만이 아닌 여러 피해국의 문제로 확대하고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국제법정의 파장은 컸다.

국제법정 개최를 전후해 국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 강제동원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런 여론에 부응해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2년여가 지난 2004년 2월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시기까지 군인·군무원·노무자·군 위안부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된 이들의 피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만 '사실'을 근거로 일본의 역사 부정을 반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 2004년 11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다. 일본이 일으킨 아태전쟁 관련국 가운데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식 기관을 꾸려 피해 진상규명을 시도한 사례는 한국의 강제동원위원회가 최초라고 한다.

진상규명으로 확인된 피해자 중 한반도 외 지역으로 동원된 이들에게는 정부가 위로금 지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시행한다는 목적 아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도 2008년 6월 출범했다. 2010년 4월에는 두 기관의 업무를 통합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신설됐다.

위원회의 존재는 강제동원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던 일본 내 양심적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본의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판 성명을 내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애초 한국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본 내 여러 지역 단체들이 뭉친 연대체였다. 이런 단체들은 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각종 자료 입수에 적극 협조하며 한일 역사연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연인원 780만 명' 속 피해자들 실제 찾기... 철저한 사실에 근거**
일제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통해 가족을 찾은 분들을 찾습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는 중국, 사할린, 중앙아시아 등에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동포들의 편지를 받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수소문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50주년을 맞아 가족을 만난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은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KBS 한민족방송으로 연락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 (우) 07232

홈페이지: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홈페이지

위챗: ID: soon8366 **이메일:** 972khz@kbs.co.kr

*사연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지급



뒤 해방 전까지 강제동원한 조선인은 연인원으로 78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 사료와 피해자·유족 진술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780만명이라는 '큰 숫자' 속에 뭉뚱그려진 개개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는 피해자 1명당 구술기록 등 조사 자료가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옛 기억이 이미 희미해진 고령의 피해자를 찾아가 장시간 진술을 듣고, 같은 시기 마을에서 동원된 다른 이들이 있는지도 탐문해 사실관계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동원자 명부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진술이 이와 일치하는지 교차검증하는 등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한 개인의 피해조사가 완료됐다.

위원회 폐지를 앞두고 작성된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11년간 강제동원 피해 신고 22만6천583건을 조사했고, 특정 지역·전범기업 등 큰 주제를 다룬 진상조사 32건도 완료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도 위원회 활동 당

시 이미 확인됐다. 2015년 위원회가 기존에 완료한 피해조사 내역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148명의 존재가 드러났다.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총 1천2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천명이 넘는다는 추정치도 있다.

논란 끝에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서도 그보다 앞선 2012년 이미 위원회 차원의 기초조사 보고서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하시마 등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상황이어서 보고서의 파장은 일본 현지에까지 미쳤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가 확인된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미수급 피해자, 생존자 등 7만 2천631건에 대해 정부 위로금을 지급했다. 일본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고자 일본·러시아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했다.

(다음호 계속)
(연합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А для самых возрастных и юных рыба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готов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онусы. Не обойдется и без конкурса на самое веселое рыбацкое фото.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Бесплатно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палатки для обогрева обеспечат для всех гостей. Кроме того, на Найбе организуют выездную торговлю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 том числе шоу-программу от сообщ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улинаров Chefs Team Russia. Детей ждет зона для катания на санях.

러시아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재검사 없이 퇴원할 것

코로나바이러스 치료가 7일 이상 지속된 경우, 환자는 퇴원 시 음성 검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령정보 공식 포털에 게재된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환자가 7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퇴원할 경우에는 양성 반응 이후 3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환자를 관리하고 소독하며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앞서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격리를 취소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Россиян будут выписывать без повторного 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Если леч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льше семи дней, то для выписки пациенту не понадобится контрольный отрицательный тест. Об этом сказано в постановлен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портале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Если больной лечится менее семи дней, то для выписки ему понадобится сдать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сделанный не ранее чем через три дня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В ведомстве уточнили, что тактика действий при коронавирусе заключается в выявлении больных, дезинфекции и соблюдении пациентами обязат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Ране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выпусти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оторое отменяет обязательную изоляцию для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больным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러시아 증류주 공식 가격 상승

러시아 증류주의 최저가가 공식적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대한 재무부의 명령이 발효되었다.

코냑의 최저 소매가격은 0.5리터당 446루블에서 480루블로 인상되었다. 파블라멘트 신문에 따르면 와인, 포도주, 코냑, 위스키, 칼베이도스, 과일 증류주로부터 생산되는 브랜드와 기타 주류의 가격도 324루블에서 348루블로 올랐다. 보드카는 243루블에서 261루블로 올랐다.

카는 243루블에서 261루블로 올랐다.

가격 상승은 증류주 도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보드카는 210루블에서 222루블, 브랜디는 269루블에서 284루블, 코냑은 370루블에서 391루블로 가격이 올랐다.

재무부는 수제 주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28도 이상의 주류의 최저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2009년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다.

Крепкий алкоголь официально подорожал в России

Миним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крепких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официально выросла в России.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иказ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Минимальная розничная цена на коньяк выросла с 446 до 480 рублей за объем 0,5 литра. Как пишет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подорожала также стоимость бренди и другого алкоголя, который производят из винного, виноградного, коньячного, вискового, кальвадосного и плодового дистиллятов — с 324 до 348 рублей. Водка подорожала с 243 до 261 рубля.

Подорожание затронуло и оптовые цены на крепкие спиртные напитки. У водки стоимость выросла с 210 до 222 рублей, у бренди — с 269 до 284 рублей, а у коньяка — с 370 до 391 рубля.

Минфин регулирует минимальные цены на алкоголь крепостью от 28 градусов и выше для борьбы с кустар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Эти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действуют в РФ с 2009 год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